

탄생 100년 피아졸라 서거 100년 생상스

13~14일 내셔널 솔리스텐 앙상블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과 협연
10월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내한
30일 교향악축제 '죽음의 무도' 중계

그 위대함을 만나다

#뉴에보 탱고 아스토르 피아졸라

전통 탱고에 클래식과 재즈 음악을 접목한 자신의 음악을 '뉴에보(nuevo·새로운) 탱고'라 지칭한 아스토르 피아졸라(1921~1992)는 춤추기 위한 연주곡으로만 익숙했던 탱고를 공연장에서 감상하는 음악으로 재탄생시킨 인물이다.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공연이 곳곳에서 열린다. 먼저, 내셔널 솔리스텐 앙상블(단장 김현경)이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과 함께 여수(13일 오후 5시 여수 GS 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와 광주(14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졸라의 '사계'를 연주한다. 14일 실황은 유튜브 채널 '유스퀘어 클래식'에서 중계된다.

이날 들려줄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는 1965년 '여름'을 시작으로 '가을(1969)', '겨울(1970)', '봄(1970)' 순서로 작곡했다. 우울한 듯 애수가 가득하면서도 격정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선율이 특징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6월 3일 기획공연 'GSO 오티움 콘서트'에서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사계' 중 '봄', '여름'을 들려줄 예정이다. 10월 10일에는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이 내한해 광주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 특별기획공연을 선보인다.

피아졸라의 곡을 담은 음반도 발매됐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최근 발매한 '현의 유전학'에 피아졸라의 'Histoire du Tango (탱고의 역사)'를 수록했다. 이 곡은 1985년 피아졸라가 기타와 플루트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기타리스트 박중호와 함께 연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원이 오로지 피아졸라의 작품으로만 구성된 '피아졸라의 회상'을 발매했다. 앨범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위대한 탱고 (Le Grand Tango)', 유작 '망각' 등이 수록됐다.

#프랑스 작곡가·연주자 생상스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였던 생상스(1835~1921).

생상스는 누군지 몰라도 '죽음의 무도'는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이 곡은 우리나라에선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쇼트 프로그램 음악으로 유명하다. 생상스가 1874년 작곡한 교향시로 1875년 파리에서 초연됐으며, 생상스의 여러 교향시 중 가장 좋은 평가와 대중의 환호를 받았다.

오른 30일 이 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교향악축제에서 성남시립교향악단이 금년새의 지휘로 생상스 '죽음의 무도' 사 단조 Op.40'을 연주하는 것.

'동물의 사육제'는 책으로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장 등을 역임한 김용범과 체임버앙상블 하늬바람 대표로 활동 중인 김한아가 쓴 '스토리텔링 콘서트 11 '카미유 생상스의 '동물들의 사육제(謝肉祭)' 이야기'는 '생상스는 누구인가'로 시작해 동물들의 사육제를 면밀히 살핀다.

'동물의 사육제'는 생상스가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휴가를 보내며 쓴 곡으로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 각 동물들의 특징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의 사육제' 안에는 '사자', '거북이', '코끼리', '캥거루' 등 모두 14곡의 관현악곡이 들어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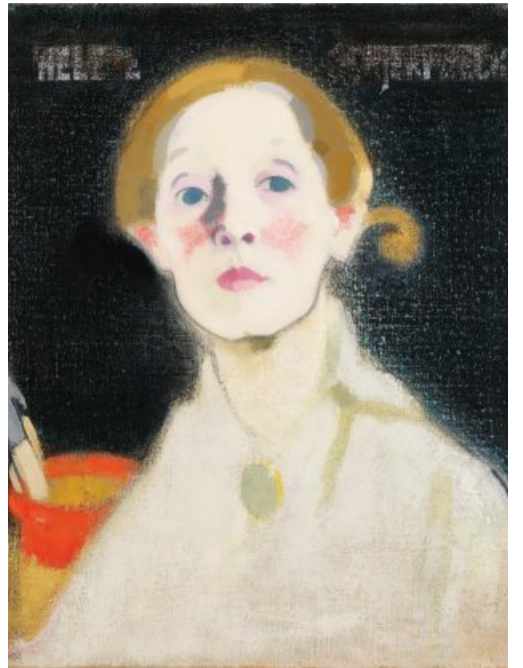
책은 이정성 넘치는 첼로 선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백조'를 비롯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프란츠 리스트를 기리는 공연도 열린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4월 3일 교향악 축제에 참가해 리스트 '교향시 미제파 No.6, S.100'를 들려준다. 장윤성이 지휘하며,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핀란드의 몽크' 영화로 만나는 '헬렌:내 영혼의 자화상'

광주극장·CGV 상영중



'검은 배경의 자화상'

몇년 전 서점에서 만난 그림 한 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지식의 표정' (전병근 지음·마음산책 출간)의 표지 그림으로 쓰인, '오묘한 표정'의 여성 초상화였다. 책 날개엔 낯선 화가의 이름이 보였고 작품은 그녀의 '자화상'이었다. '검은 배경의 자화상'의 주인공을 최근 영화로 만났다. 핀란드 화가 헬렌 웨르벡(1862~1946).

'핀란드의 몽크'로 불린다는 헬렌 웨르벡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헬렌: 내 영혼의 자화상' (안티조키네 감독)이 잔잔한 감흥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 우리에게 낯선 북유럽 작가 헬렌 웨르벡은 독특한 색감과 기법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갔고, 특히 자화상을 비롯해 인물화를 많이 남겼다. 영화 속에서 그녀는 '자화상을 그리는 것은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 하늘을 그리는 것처럼 힘들다'고 말한다. '여성화가'가 아닌, '화가' 이기를 바랬던 헬렌은 사회의 편견과 억압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투영한 자화상을 그려나간 작가다.

'기묘하고 조용한 아름다움'이라는 가디언지의 평처럼 우리가 잘 몰랐던 한 예술가의 삶을 세심히 따라가며 나지막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는 한 명의 탁월했던 예술가를 '발견하는 기쁨'을 전해준다. 한 폭의 그림같은 영상미와 아름다운 음악, 로라 비른의 섬세한 연기가 어우러진 작품을 보고 나면 근사한 전시회와 음악회에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든다.

1915년에서 1923년까지의 삶을 담은 작품은

미술계의 관심에서 멀어져 지내던 헬렌이 죽을 때까지 1100통의 편지를 주고 받은 에이나르와의 사랑과 헤어짐을 통해 고통 받고, 또 이를 극복하며 내면을 다지고 그림에 몰두하는 과정을 담았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헬렌의 '작품'들이다. 파리 세계 박람회 동메달 수상작 '회복기 환자'를 비롯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표작을 마치 전람회에 온 것처럼 감상할 수 있다.

영화를 빛나게 해주는 건 시종일관 흐르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다. 영화 '운디네'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긴 곡으로 마르첼로의 '오보에협주곡 2악장'을 바흐가 편곡한 '협주곡 D단조 BWV 974'를 비롯해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 등이 영화의 분위기를 더한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자 동료 헬레나와 함께 들뜬에서 있는 모습 등 영화 속 장면들은 한 폭의 그림처럼 영상미의 절정을 이룬다. 광주극장과 CGV에서 상영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구청장협, 문화시설 강사 지원...985명에 50만원씩

광주시 5개 자치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사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문화시설 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정복지센터, 구립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램 강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자치구는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시설별 위촉·계약된 정규과정 강사 총 985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총 4억 92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8일부터 12일까지 각 구청별 시설관리 부서에서 접수받으며 지원금은 10일과 17일 2회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5개 자치구 중 여러 곳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1회만 지급한다. 문의 062-410-605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